



경상남도 김해시 북쪽에 있는 생림면은 예부터 한우 농가로 유명하다.
 또 하나 있다면 온화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
 오늘 만난 <시연농장>의 조남식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제1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최우수상에 “그저 운이 따랐다.”며
 도와준 이들에게 공을 돌리는 겸손한 축산인.
 하지만 그 안에는 일흔(70)이라는 나이에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는 그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경남 김해 <시연농장> 조남식 대표의 배움으로 키웁니다

글 김대진 사진 임태헌



05:30 버릴 게 없던 한우 공부

<시연농장>을 운영하는 조남식 대표는 2015년 제1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한우부분에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2003년, 송아지 몇 마리로 시작한 작은 축산 농가에서 이제는 생림면을 대표하는 축산 농가로 성장한 셈이다. 12년 동안 소를 키우면서 “배워서 버릴 건 없다.”며 모든 걸 배움으로 이뤄냈다는 조 대표. 그의 일상은 새벽 5시, 소의 아침을 준비하면서 시작된다. 이곳은 자체 생산한 발효사료(TMFS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사료 공부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곰팡이를 완벽하게 제거한 <시연농장>의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공부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궁금하면 반드시 물어보는 스타일인 조 대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협, 수의사, 도축가 등 다양한 기관과 전문인을 통해 여러 노하우를 터득했다. 동시에 생긴 철칙이 있다면 바로 ‘소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생각. 그로 인해 얻은 것이 사료(食)와 우리(畝)였다. 짐승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사료와 환경에서 키운다면 좋은 품질의 고급육이 나오질 않는다. 소의 건강까지 채워주는 사료와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이른 새벽, 소에게 아침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조 대표의 아침. 그래서 인지 <시연농장>의 한우들은 유독 색이 곱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



11:30 정으로 변화한 시연농장

점심을 주기 전, 조 대표는 소들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한다. 이때 소의 귀 뒤편에 붙은 귀표를 확인하면서 눈꺼풀과 눈동자의 색을 관찰하고, 이어 귀와 배, 식욕과 되새김, 배뇨·배변의 냄새까지도 점검한다. 매일 150여 마리의 소를 살펴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으로 키우는 마음이 강해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정이 많이 들죠. 자식처럼 키운 농들인데, 병으로 아프게 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 마음이 깊어 일흔의 나이에도 소를 연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소의 건강을 살펴보는 일이 끝나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하러 나간다. 소의 복지를 위해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본다는 조 대표. 선진 농가의 기술을 도입하고, 주변 지인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덕분에 그의 하루는 길다. 얼마 전 농장의 천장을 개조했는데, 더위에 힘들어하는 소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한다. 하얀 천장 아래, 더운 여름을 편하게 보내길 바라는 그의 마음이 배어 있는 듯했다. 사계절에 맞춰 미래 농장을 개선하고, 온도·습도 확인부터 송아지 암소, 거세 소까지 건강을 살펴보는 그의 모습에서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느낌이 든다.



17:00 배움으로 이뤄낸 자신감

저녁이 되면 새로운 사료를 배합하는데, 이때 영양제(미네랄)와 생균제 등을 조합하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한다. 20일 동안 발효시킨 사료(TMf)는 소의 건강은 물론이요, 관절염이 생긴 암소, 시력이 안 좋은 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경험을 통해 얻은 사료의 효능이다. 송아지 입식 때부터 사료(TMf)와 양질의 조사료(수입건초)를 주면서 장내 발효능력을 향상시켰고, 육성기에 충분한 골격 발달을 유도하여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체형을 이끈 것이다. 그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 31두 중 1⁺등급이 67.8%로 전국평균 16.7%에 비해 51%가 높았다.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은 96.8%였다. 건강, 환경, 육질 개선까지 가져온 큰 효과였다. 밤이 되면 소들은 잠이 든다. 그러나 조 대표는 새로운 축산 공부를 시작한다. 이전까지 건강과 환경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우수한 한우 생산을 위한 개량에 몰입하고 있다. 4년 전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소들이 좋은 등급을 받게 해주었다. 꾸준한 배움으로 시작한 농장은 영예의 수상을 거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급육 생산농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수한 DNA와 지속적인 암소개량이 앞으로 <시연농장>의 목표이다. 한우를 생산하는 최고의 농가로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본다. ☺

